

현대차그룹 올해 24.3조원 역대 최대 규모 국내 투자

지난해 집행 대비 3조9000억원 많아...위기 극복 본거지 국내 선택 R&D 11.5조·경상투자 12조...전동화·SDV 등 미래기술 확보 중점

현대차그룹이 그룹 혁신 허브인 한국을 중심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 국내 투자를 단행한다. 현대차그룹은 13일 "올해 24조3000억원을 국내에 투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투자 집행액인 20조4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19%) 늘어난 금액으로, 연간 기준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까지 역대 최대 분기 실적 등 성과를 거뒀지만, 올해에는 어느 때보다 돌발적인 경영 변수가 산재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국내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기 타개의 본거지로 국내를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금액별로는 연구개발(R&D)에 11조5000억원, 경상 투자에 12조원, 전략 투자에 8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먼저 연구개발 투자는 제품 경쟁력 향상, 전동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수소 제품 및 원천기술 개발 등 미래 역량 확보를 위해 사용된다. 현대차그룹은 하이브리드 모델과 차세대 하이브

리드 시스템, 주행거리 연장형 자동차(EREV) 등으로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에 따른 전기차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전기차 신모델 개발로 전동화 전환도 가속한다. 현대차는 2030년 총 21개 모델의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할 예정이고, 기아는 2027년까지 목적 기반모빌리티(PBV)를 포함해 15개 모델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춘다.

SDV 분야에서는 2026년까지 차량용 고성능 전자·전자 아키텍처를 적용한 SDV 페이스 카(Pace Car) 개발 프로젝트를 완료해 양산 차에 적용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가동 중인 기아 광명 이보 플랜트에 이어 전기차(EV) 전용 공장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다.

2026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현대차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은 초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생산 능력 확대를 위



현대차그룹 본사 전경.

해 차체를 통째로 제조하는 신공법인 하이퍼캐스팅을 도입한다. 또 현대차 울산 공장에 하이퍼캐스팅 공장을 신설한다.

경상 투자는 전기차 전환 및 신차 대응 생산시설

확충, 제조 기술 혁신, 고객 체험 거점 등 인프라 보완에 집중된다.

전략투자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등 미래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행된다.

올해 투자액을 산업군별로 살펴보면 완성차 분야 투자액이 전체의 67%인 16조3000억원을 차지한다.

완성차 투자액은 차세대 연료전지 및 수소 버스·트럭 개발·수소충전소 구축 등 HTWO 그리드 설루션 구축에도 투입된다.

나머지 8조원은 부품, 철강, 건설, 금융, 물류, 방산 등에 쓰인다.

부품 분야는 전동화 기술 개발, 생산라인 증설, 친환경 부품 개발, 전기차 모듈 신공장 구축 등을 추진한다.

철강 분야는 액화천연가스(LNG) 자가발전소 건설, 친환경 소화설비 신설 등을 진행하고, 건설 분야는 수전해 수소 생산 실증사업, 소형모듈원전(SMR),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금융 부문은 IT 시스템 및 인프라 개선을, 물류 부문은 친환경 자동차 용선 확대 등을 추진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과 평화로운 삶"이라는 인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대내외 경영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적극적인 투자, 끊임없는 체질 개선,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소중한 가족 보내줘서 감사”...GGM 신입사원에 ‘웰컴 키트’ 전달

감사 편지와 떡 선물세트 보내 윤몽현 대표 취임 축하문화 도입



“귀택의 소중한 가족을 GGM의 가족으로 맞이하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2025년 신입사원 지택에 편지와 선물이 담긴 ‘웰컴 키트’를 전달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서 해오고있는 신입사원 축하 문화를 현대자동차 그룹 부사장 출신의 윤몽현 대표이사가 취임 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GGM은 지난 7일 3개월의 수습과정(인턴사원)을 거쳐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37명의 2025년 신입사원 가정에 윤몽현 대표이사의 감사 편지와 떡 선물세트(사진)를 보냈다. 윤몽현 대표 명의의 서신은 각 신입사원의 이름과 부여받은 업무에 대한 설명, 정규직 최종 합격에 축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이 회사에서 보내준 편지와 축하 선물을 받고 감동해서 회사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졌다"며 "노사상생발전 협정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차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GGM 인사담당자는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우수한 인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GGM의 경영철학과 직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감성 경영의 의지가 함축된 이벤트"라며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개인의 비전을 실현하고 회사와 함께 자신의 꿈을 이루는 즐거운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GM은 이밖에도 신입사원들에게 지난 8일 열린 '입사식 및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식' 기념 촬영 사진을 인화해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GGM은 직원 가족 초청 회사 견학 행사와 입사 후 결혼한 사원들을 초청해 축하하는 행사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아이오닉5N DK 에디션.

현대차 ‘아이오닉5 N DK 에디션’ 첫 공개

일 레이스 쓰치야 게이치 협업 개발

현대자동차가 지난 10일 일본 자바현 마쿠하리 멧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일본 최대 자동차 튜닝 박람회 2025 도쿄 오토살롱에서 '아이오닉5 N DK 에디션'을 처음 공개했다. DK는 현대차가 초기 개발단계부터 협업한 일본 레이스 쓰치야 게이치의 별명 '드리프트 킹'(Drift King)에서 따왔다.

현대차 관계자는 "쓰치야 게이치와 함께 일본 현지 서킷 및 와인딩 코스에서 여러 제조사의 튜닝 부품을 테스트하며 최적의 패키지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항공기에 쓰이는 합금인 두랄루민이 6P 모노블록 캘리퍼(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유압장치)에 활

용됐다. 브레이크 패드는 기존 모델보다 면적이 54% 넓어져 마찰계수가 증가했다.

타이어 안착 면에 특수한 톱니 가공 구조가 적용된 21인치 경량 단조 휠은 마찰력을 높이고 로워링 스프링은 차량 무게 중심을 낮춘다. 공기 저항을 제어하는 프론트 스플리터 등은 탄소섬유 소재로 제작돼 '다운포스'(차를 노면으로 밀어붙이는 힘)를 끌어올렸다.

박준우 N매니지먼트실장은 "쓰치야의 드라이빙 노하우와 현대차의 기술력이 접목된 패키지를 통해 운전의 즐거움과 고성능 차를 사랑하는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에디션은 올해 상반기 국내와 일본에 출시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캐스퍼 스튜디오 부산’ 오픈 수영구에 124평 전시 공간 비대면 시승 프로그램 운영



현대자동차가 13일 부산 수영구에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캐스퍼 전용 전시 공간인 '캐스퍼 스튜디오 부산' (사진)을 연다고 밝혔다.

약 124평 규모의 이곳에서 고객들은 차량을 직접 경험하고 구매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작년 3월 개관한 스튜디오 송파에 이은 두 번째 캐스퍼 전용 전시 공간으로 이번엔 비대면 시승 프로그램이 새롭게 추가됐다. 비대면 시승은 현대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한 뒤 디지털 키를 발급받아 1시간 30분간 차량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전시장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유로운 구매 상담, 실제 차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해 고객들이 온라인 자동차

구매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대면 전시 공간 외에도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안전도 평가 1위 기념 ‘벤츠 E 200’ 1월 신규고객 보증 연장 제공

무상 서비스 2년·7만km까지 연장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E200 모델의 자동차 안전도 평가 1위를 기념해 해당 차량 구매 고객에 보증기간 연장 혜택을 제공한다.

메르세데스-벤츠 E 200은 지난 12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발표한 '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서 종합점수 1위에 오르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오는 31일까지 '메르세데스-벤츠 E 200'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보증 연장 상품(20만 원 상당)을 무상 제공한다. 파워트레인 과 차체, 일반부품 등에 대한 보증 수리 혜택 및 긴급출동 서비스에 대한 무상 보증을 2년 또는 7만 km까지 연장한다.

이상국 세일즈 부문 총괄 부사장은 "한국 고객들의 높은 안전 기준과 신뢰에 부응한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E-클래스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다 많은 분들에게 가



메르세데스-벤츠 E 200 아방가르드.

치를 전달하고자 이번 보증 연장 혜택을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로 삼각별의 위상을 더욱 높이며 고객들에게 특별한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64개 공식 전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차·기아 22~24일 설 특별 무상점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설 특별 무상점검'을 진행한다.

설 특별 점검은 브레이크 패드와 공조장치, 타이어 등 기본항목부터 엔진오일(오일류·배터리 등), 전기차로 구성됐다. 점검 고객에게는 워셔액을 무상 지급한다.

무상점검을 원하는 소비자는 오는 15~17일 마이현대·마이기아·마이제네시스 등 차량 점검 앱을 설치한 후 쿠폰을 다운로드하면 된다.

점검은 전국 블루핸즈 1223곳, 오토큐 750곳을 방문해 점검 받으면 된다.

현대차·기아는 "설 귀향길 장거리 운행에 나서는 고객에게 도움이 되고자 무상 점검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차량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설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형 전기 승용차 살때 세 부담 준다

산자부 친환경 인증 기준 낮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대형 전기 승용차에 대한 친환경 인증 기준을 낮춰 소비자들의 세계 혜택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기아 EV9과 올해 출시 예정인 현대차 아이오닉9는 완화된 친환경 인증 규제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13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 승용차를 축간거리 3050mm를 기준으로 중형과 대형으로 구분하고, 대형 전기 승용차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3.4km/kWh를 충족하면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축간거리 3050mm 미만인 차량은 에너지 소비 효율이 4.2km/kWh 이상이어야 친환경차 인증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전기 승용차는 중대형에 관계없이 에너지 소비 효율이 3.7km/kWh

이상이어야 친환경 전기차로 인정된다.

친환경 인증 차량에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개별소비세 감면 폭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감면 및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준 규정이 너무 오래돼 정비할 필요가 있고, 대형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있어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을 겪고 있는 시장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아이오닉9와 EV9은 축간거리가 각각 3130mm, 3100mm로 개정안에 따라 대형 전기차에 적용되는 완화된 친환경 인증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전기 승용차는 대부분 축간거리가 3050mm 미만이라서 강화된 친환경 규제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